

물류창고 화재예방 위해 안전점검·기술개발 강화한다

- 6월 16일까지 61일간 대형 물류창고 20개소 집중 안전점검 결과 39건 시정조치
- 물류창고 화재 안전 강화 및 물류창고에 특화된 화재 안전 기술 개발 추진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대형 물류창고의 화재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매년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, 최근 61일간(4.17.~6.16.) 20개 대형 물류창고를 집중적으로 안전점검한 결과, 화재 안전시설 보수 필요 2건과 관리 미흡 37건 등 12개소에서 총 39건의 부실 사례를 발견하였다.

- 점검 결과에 따라, 화재 안전시설이 필요한 2곳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를 요구하고, 관리부실 37건은 현장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다.

□ 또한,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물류시설의 화재 안전성을 높이고 물류창고 위험도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기술 개발*을 추진하고 있다.

* (물류시설 화재 안전성 및 위험도 관리기술 R&D) 물류시설 화재 시 피난 안전성 확보 기술 및 위험도 관리 기술 개발, 물류창고 기반정보 구축 등('22~'26, 234억)

- 이와 함께, 7월부터 전국 1,700여 개 물류창고업*을 대상으로 기반정보(창고 외장자재, 보관물품 등)를 조사할 예정이며, 적층식 랙(메자닌)과 같이 화재 위험도가 높은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.

*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바닥면적 1,000㎡ 이상 보관시설 및 4,500㎡ 이상 보관창고

- 또한, 현장의 불편을 야기했던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정보시스템에서 작성·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('23.12월)할 예정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강주엽 물류정책관은 “최근에도 평택 냉동창고('22.1월), 이천 물류창고('22.5월) 등 대형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”면서, “물류업계도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힘써주실 것”을 당부하였다.
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	책임자	과 장	안진애 (044-201-4006)
	첨단물류과	담당자	서기관	이승훈 (044-201-4011)



□ 점검개요

- (점검목적) 재난,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대형 물류창고를 사전 점검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물류창고업 화재예방 및 안전의식 강화
- (점검기간) '23. 4. 17. ~ 6. 16.(61일간)
- (점검대상) 연면적 15,000㎡(1급 소방관리 대상물) 이상, 상시 근무자 100인 이상 물류창고 20개소
- (점검단) 국토교통부, 지자체, 한국건설기술연구원(화재안전연구소) 등
- (점검내용)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실태, 화재 안전점검 체계, 화재 안전의식, 재난대비 역량 등 집중 점검

□ 점검결과

- 20개소 점검 결과 총 39건 미흡사항 점검 및 시정조치 요청
 - (보수필요) 방화스크린셔터면 파손, 방화구획 경계면 관리불량
 - (현지시정) 방화셔터 내 물건적치, 피난안내도와 실제 피난방향 불일치, 소화기 배치 미흡, 피난안내도 미설치, 방문자 안전교육 미흡 등

* 주요 지적 사례

방화 스크린셔터 파손	방화구획 경계면 관리 불량	방화셔터 내 물건 적치
		

□ 향후계획

- 미흡사항 이행·조치여부 사후점검(7월~)
- 물류창고 기반정보 현황조사(7월) 및 화재안전계획서 지침개정(9월)